

수출의 국민경제 파급효과 개선방향 [요약]

(해외경제연구소)

1. 연구 목적

- 우리 경제에서 수출 위상 재조명 · 수출의 질 제고 방향 제시
 - (내수중심 성장론) 수출의 국민경제 파급효과가 떨어짐에 따라 경제 성장의 축을 수출에서 내수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 대두
 - (수출회의론) 수출은 우리 경제의 안정성을 떨어뜨리고, 수출 성과가 내수 경기로 이어지지 않는 ‘수출·내수 디커플링’ 현상만 심화되고 있다는 것
 - (원인) 우리 경제에서 수출이 과도한 몫을 차지하고 있다는 오해 내포, 수출과 내수의 연결 고리에 대한 정확한 인식 부족
 - (문제점) 내수만으로는 성장의 한계 가능성이 높으며, 성장 잠재력이 높은 수출 보완 없이 지속적인 성장 담보 어려움
 - 현재 우리 경제에서 수출의 위상, 수출 구조 문제점 진단, 수출의 질적 제고 방향을 제시해 ‘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으로서의 수출의 역할’ 재정립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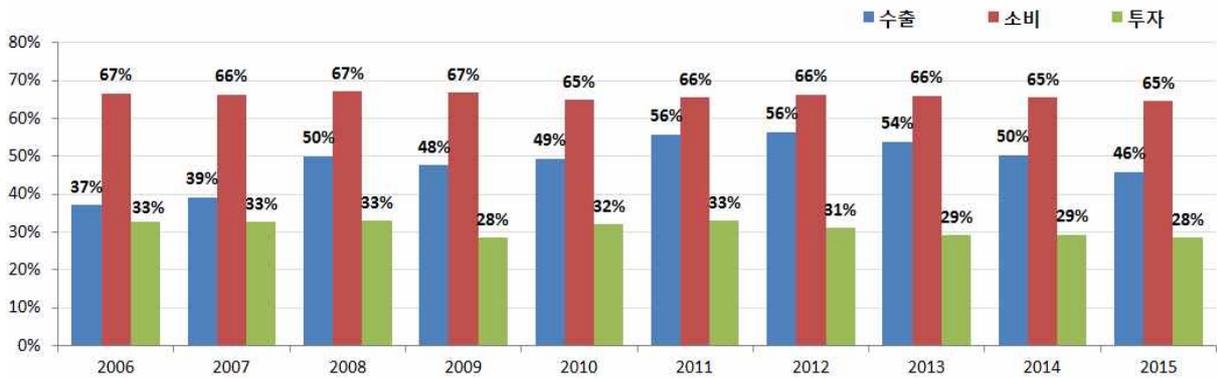
2. 한국 경제에서의 수출

- 우리 경제에서 수출의 비중은 과도한가?

“국내 총생산(GDP)에서 수출 비중 50% 육박”

- (GDP 구성) 국내총생산(GDP) = 소비 + 투자 + 수출 - 수입으로 구성, 수입을 뺀 세 항목의 합은 100%를 넘게 됨.
- “국내 총생산(GDP)에서 수출 비중이 50%”라는 것은 국내 총생산의 절반이 수출에서 창출된다는 의미가 아니며, 국내총생산 내 항목별 비중은 소비(65%) > 수출(46%) > 투자(28%) 순

국내 총생산(GDP) 내 소비·투자·수출의 비중



자료 :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

소비·투자·수출의 비중 재구성 (합계=100)

		2006	2007	2008	2009	2010	2011	2012	2013	2014	2015	06~10 증가율	11~15 증가율
내수	소비	48.8%	48.0%	44.7%	46.8%	44.3%	42.5%	43.1%	44.3%	45.1%	46.5%	5.0%	3.7%
	투자	24.0%	23.6%	22.0%	19.9%	21.9%	21.4%	20.2%	19.5%	20.2%	20.5%	5.1%	0.3%
	소계	72.8%	71.6%	66.7%	66.7%	66.2%	63.9%	63.3%	63.8%	65.3%	67.0%	5.0%	2.6%
수출		27.2%	28.4%	33.3%	33.3%	33.8%	36.1%	36.7%	36.2%	34.7%	33.0%	11.7%	-0.9%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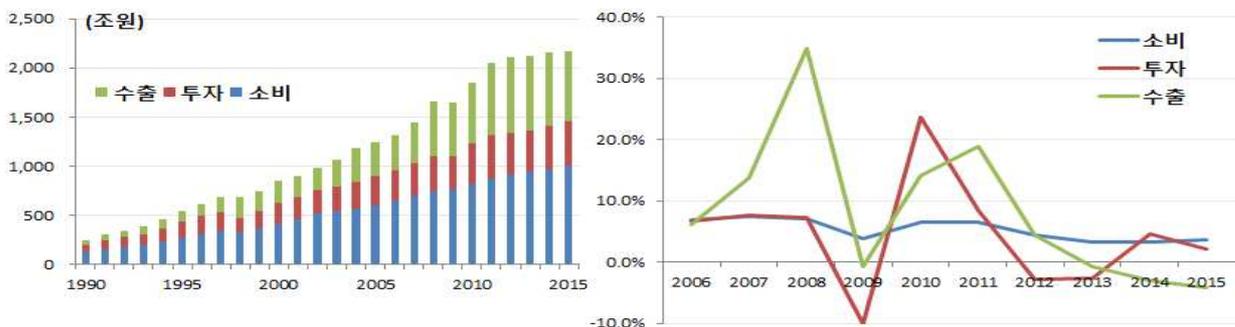
자료 :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

주: 국내총생산 중 수입 부분을 제거한 '소비 + 투자 + 수출 합계' 내에서 비중으로 집계, 평균 증가율은 생산액 증감의 연평균 증감율로 계산

□ 수출 하락시 투자 위축 → 내수 위축 → 국내 총생산 감소

- (내수 하락) 내수(소비+투자) 70%→60%대 하락, 소비 비중 40%대 꾸준한 유지, 투자 비중 하락으로 내수 비중 감소
- (투자과 수출) 투자는 내수 분야이지만 내수 시장 규모가 작은 우리나라에서는 최근 수출과 더 높은 상관성

소비·투자·수출 구성액 추이(左) 및 증감율 추이(右)



자료 :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

- (수출과 내수) 수출이 위축될 경우 자본 투자가 미약해져 내수 증진 및 성장률 제고를 기대하기 어려움.

□ 소비 중심 성장 한계 · 내수시장 안주로 경쟁력 상실 가능

- (사례 부족) 국내 시장 규모 협소, 세계 경기 활황시 수출주도형 경제의 장점이 여전히 유효해, 1970년대 이후 수출 성장 국가 중 내수 중심 성장 전환 사례 거의 없음.
- (경상수지 적자) 소비 중심 내수 주도형 성장은 경상수지 악화 초래, 미국과 같이 기축통화를 보유한 나라 외에는 경상수지 적자를 지속하며 성장 유지 어려움.
- (일본 침체) 내수시장에 안주했던 일본의 경우 전자산업 등에서 생산성 정체, 하락을 경험하다 글로벌 경쟁력 상실

3. 한국 수출구조의 특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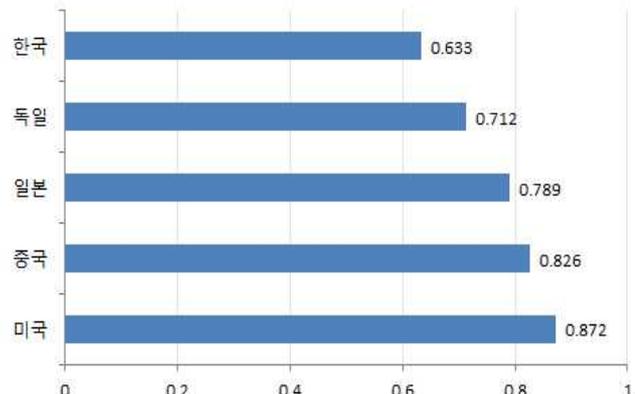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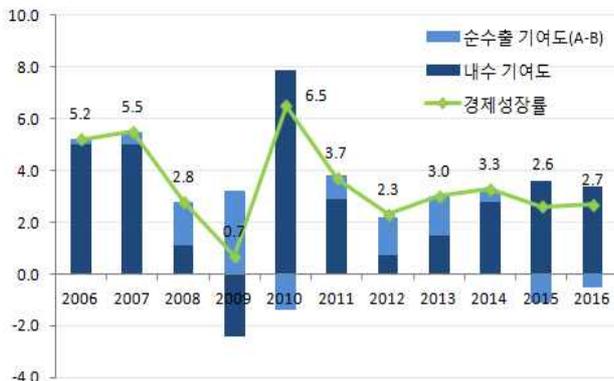
□ 고부가 중간재 수입 의존도 높아 부가가치 유발도 낮은 수준

- (저부가가치) 수출의 수입 유발계수는 2014년 0.424, 수출의 부가가치 유발계수도 미국(0.872) > 중국(0.826) > 일본(0.789) > 독일(0.712) > 한국(0.633) 순으로 주요국 가운데 낮음.
- (원인) 수입 중간재를 활용한 전자·기계 조립 가공 수출 비중이 여전히 높기 때문

순수출의 성장기여도

주요국 수출의 부가가치 유발계수

단위 : %p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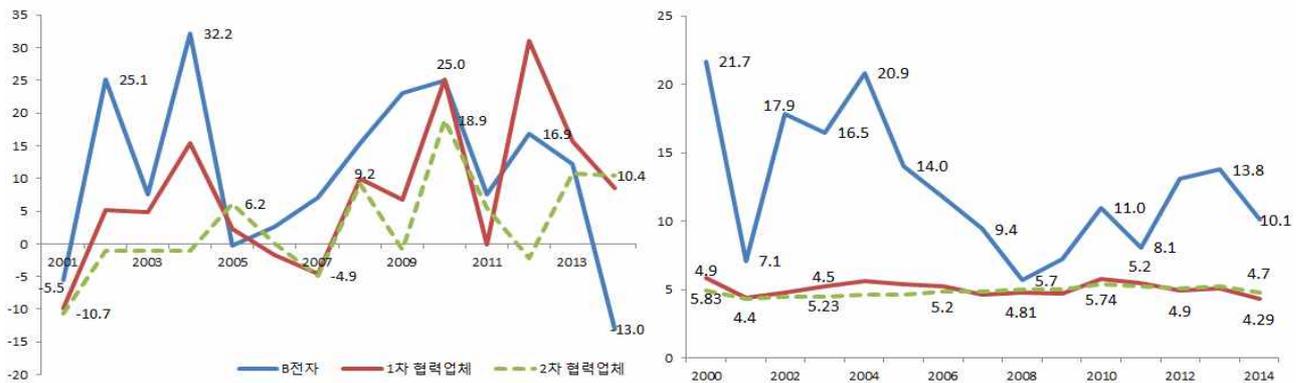
자료 : 한국은행

자료 : wiod.org, 국제무역연구원에서 재인용

□ 협력 중소기업 성장 제한으로 수출 부가가치 개선 미진

- (낙수효과 하락) 글로벌 아웃소싱 증가, 대기업의 납품단가 관리 관행, 협력 기업간 경쟁 심화 등으로 수출 대기업 성장의 협력 중소기업 파급효과 하락 추세
- (결과) 수익성이 낮게 관리돼 협력 중소기업 기술개발 여력 부족, 기술 변화시 협력기업에서 누락, 고부가 중간재 수입 지속

A전자와 협력업체 매출액 증가율 추이(좌) 및 영업이익률 추이(우)



□ 수출의 취업유발도 낮지만 창출되는 고용의 질 상대적 우수

- (고용효과) 수출의 취업유발계수는 2014년 10억원당 8.1명, 소비 15.2명, 투자 13.1명 및 전산업 평균 12.9명에 비해 낮은 수준
- (고용의 질) 수출 한 단위 증가시 장비·기술 집약적 산업에서 취업 유발, 취업 유발인원 및 취업 유발계수 낮지만 임금 수준은 높아 고용의 질은 우수, 증가 가능성도 더 높음.

소비·투자·수출이 유발하는 취업 분야 및 임금

	취업 유발 상위 산업	월평균 급여
소비	도소매 서비스(15.5%), 문화 및 기타서비스(12.0%), 음식점 및 숙박서비스(11.4%), 농림수산물(11.2%), 교육서비스(9.1%),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(6.7%)	261만원
투자	건설(31.3%), 전문, 과학 및 기술서비스(19.0%), 도소매서비스(12.3%), 정보통신 및 방송서비스(4.7%)	296만원
수출	도소매 서비스(18.7%), 운송서비스(12.6%), 전기 및 전자기기(7.4%), 사업지원서비스(7.1%), 운송장비(5.9%), 음식점 및 숙박서비스(5.9%), 전문, 과학 및 기술 서비스(5.3%)	278만원

한국 수출구조의 특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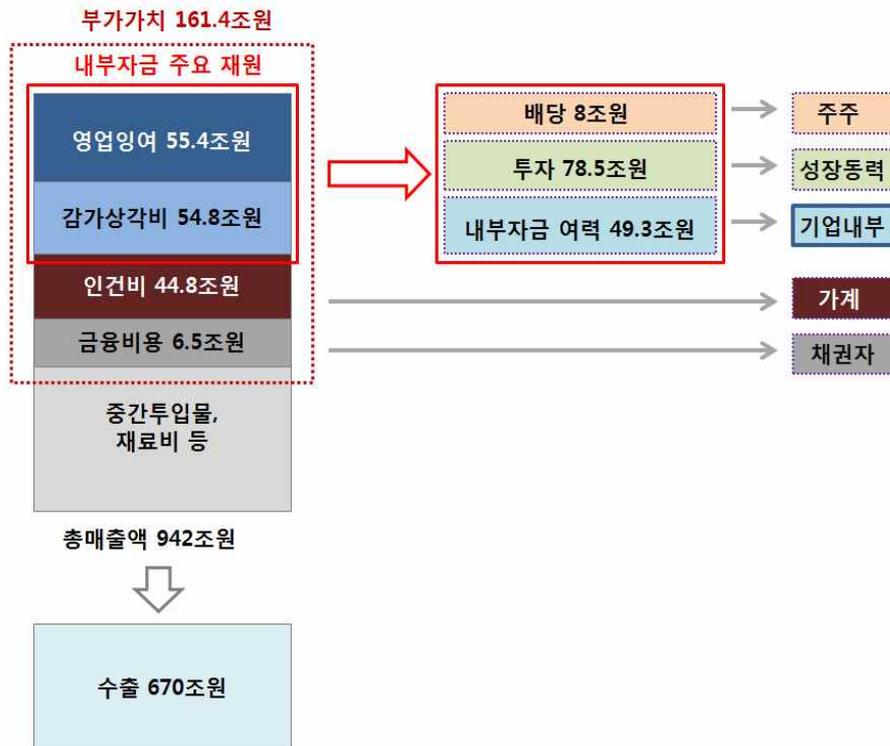
		현상	원인
한국 수출 구조 특성		수출의 수입 유발도 ↑ : 수입유발계수 0.424, 2016년 순수출 성장기여도(-0.5)	- 고부가가치 수입 중간재 의존도 ↑
		수출의 부가가치 유발도 ↓ : 미국(0.87) > 중국(0.83) > 일본(0.79) > 독일(0.71) > 한국(0.63)	- 수출대기업과 부품기업의 협력 약화 → 국내 협력기업들의 기술개발 여력 상실
		수출의 고용 유발도 ↓ : 수출 10억원당 8.1명 취업유발 고용 질은 상대적 우수	- 수출은 장비집약산업에서 취업 유발 - 유발 인원 작으나 임금은 높음.

4. 수출의 질 개선 방향

□ 수출대기업 유보금 활용 부품기업 협력 강화, 중간재 고부가가치화

- (내부유보금) 수출 상위 50대 기업들의 수익 중 내부유보 가능 재원 연간 110조원(영업잉여 55.4조원, 감가상각비 54.8조원) 발생, 배당·투자 제외 연간 49.3조원 내부 유보, 기업 내부자금 여력은 높은 상황

50대 수출기업 자금 흐름도 (2015년)



자료: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“수출기업 부가가치 구성 및 고용·투자 분석”
주: 수출액은 2011~2015년 평균 수치 적용

- (원인) 수출 대기업의 높은 수익 원천은 협력 중소기업들의 영업 마진을 일정 수준 이하로 관리하기 때문
- (개선방향) 부품 기업들의 적정마진 보장, 기술개발 여력 증진 통해 고부가가치 수입 부품 대체 기반 마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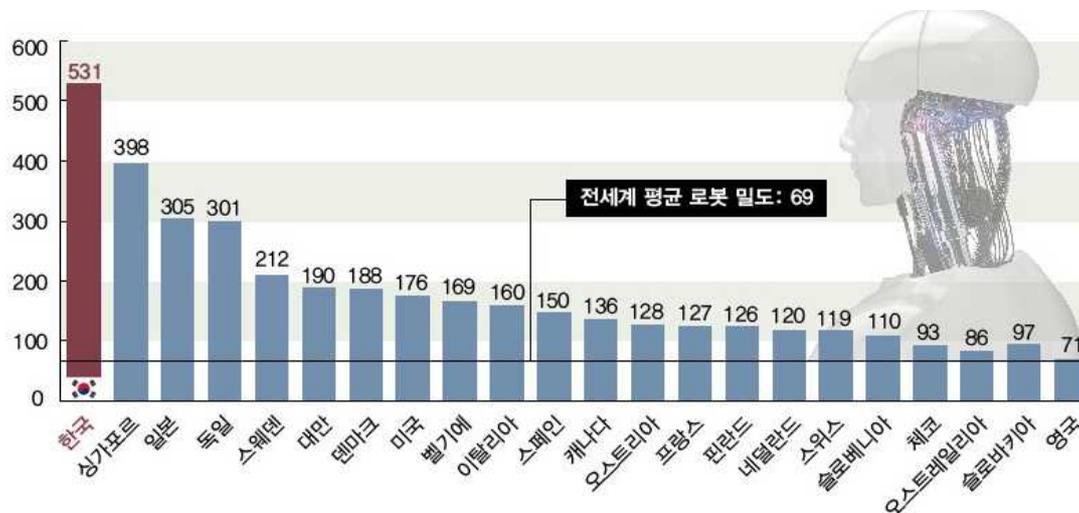
□ 선진국형 기술 전환 위해 M&A 활용, 지식체제 정비

- (기술 전환) 과거에는 기술 수명이 짧은 산업 위주로 선진국 기술 추격 성공, 이후 수명 긴 기술 위주 전환 필요
- (현황) 2000년대 이후 부품소재, 바이오 의약 분야 등 선진국형 기술 분야 진입 중, 뚜렷한 성과 부족 상황
- (개선방향) 실패 위험 때문에 내부자금 유보, 신기술 투자를 지연시키기보다는 중국·인도처럼 M&A·협력 연구로 고부가 기술 획득

□ 설비 중심에서 신산업·인력개발 중심 투자 전환, 고용효과 제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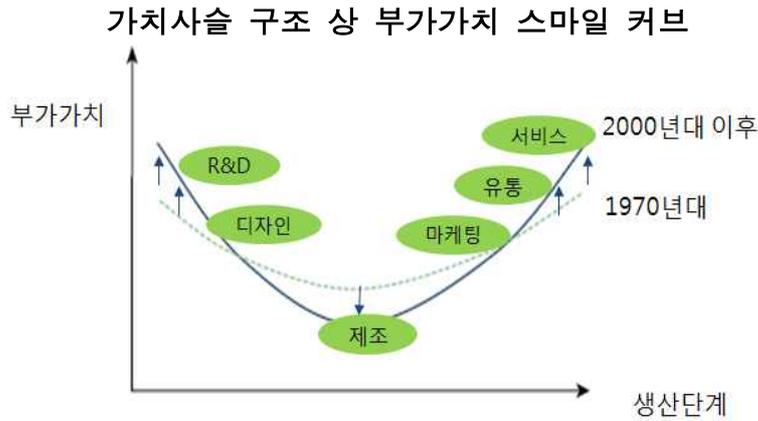
- (투자율) 우리나라의 총투자율(= GDP 대비 총고정자본형성)은 30.8%('12)→29.0%('13)→29.3%('14)→28.5%('15)로 OECD 국가 내 최고 수준, 총투자 중 기업 비율도 68.2%로 투자율은 높은 수준
- (문제점) 수출 산업 포트폴리오상 장치산업 비중 높고, 설비 투자 중심이어서 고용 유발을 약화시키는 투자 지속

제조업 노동자 1만 명당 로봇 수



자료: 세계로봇연맹(IFR, 2016), 한겨레 신문에서 재인용

- (개선방향) 설비 자동화 탈피, R&D·마케팅 등 가치사슬상 고부가가치 영역으로 투자 중심축 전환해 단순 생산직이 아닌 기존에 없던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증대 통해 고용 효과 개선



□ 중소기업 수출화를 통해 기업 성장 발판 마련 · 일자리 창출

- (중소기업 역할) 대기업 최종재 수출 지원자로서 중소기업 역할 강조, 중소기업 수출은 주요 과제에서 벗어나 있었음.
- (개선방향) '낙수효과'가 하락함에 따라 중소기업 자체의 성장을 추동할 수 있는 성장 전략으로서 '중소기업 수출화' 필요
- 내수 시장 규모가 작아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수 없는 환경에서 기업의 성장을 위해서는 수출 필수적
- (효과) 기업의 성장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신규 고용 유발, 중소기업의 수출 통한 성장 과정에서 보다 많은 일자리 창출 가능성이 높음.

대·중소기업 산업별 취업유발계수 비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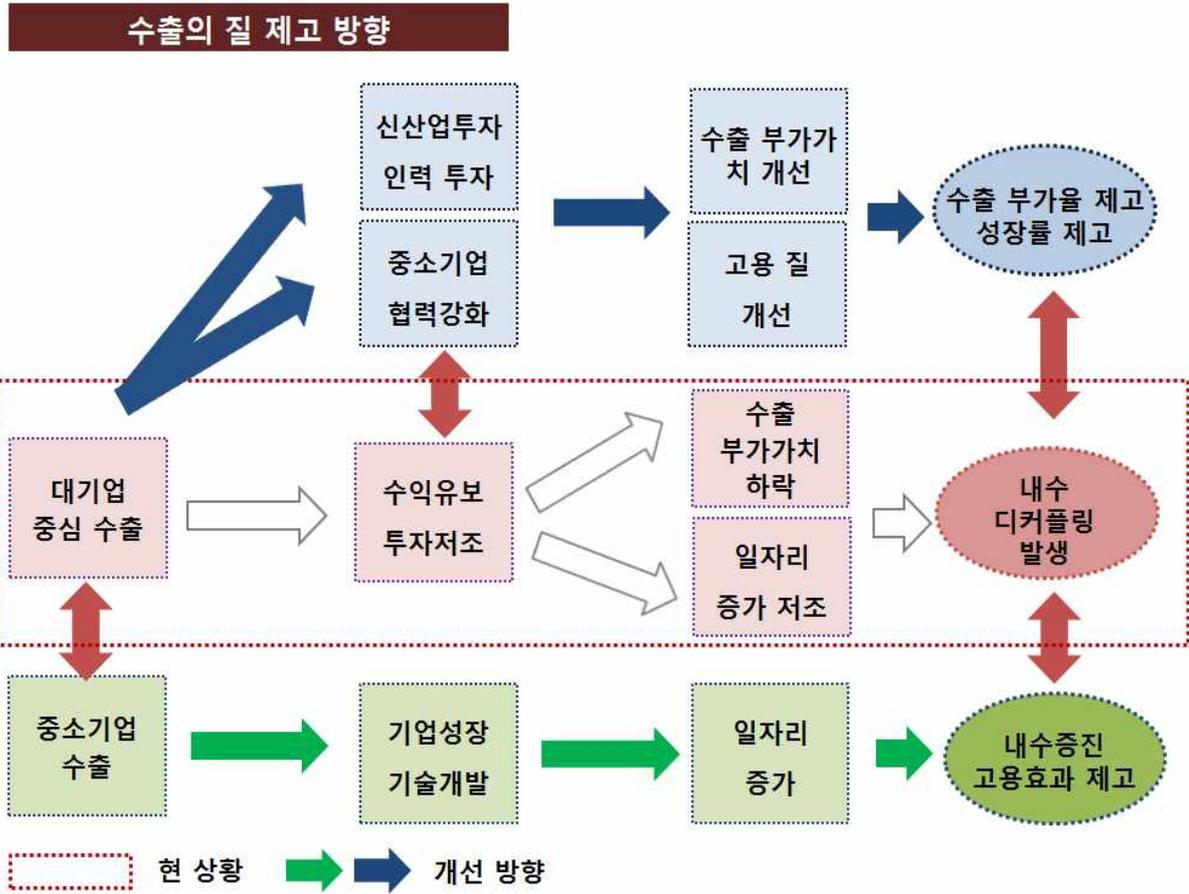
단위: 명/십억원

	대기업(A)	중소기업(B)	편차(A-B)
제조업	5.5	9.7	-4.2
소비재	12.7	15.0	-2.3
기초소재	3.8	7.0	-3.2
조립가공	5.9	8.9	-3

자료: 산업연구원 '2013년도 대중소기업 산업연관표 작성과 분석'

주: 취업유발계수는 생산 10억원당 유발되는 취업자수, 2013년 산업연관표 기준으로 작성됨.

수출의 질 제고 방향 개념도



확인자	산업경제팀장 이 재 우
작성자	선임연구원 김 윤 지